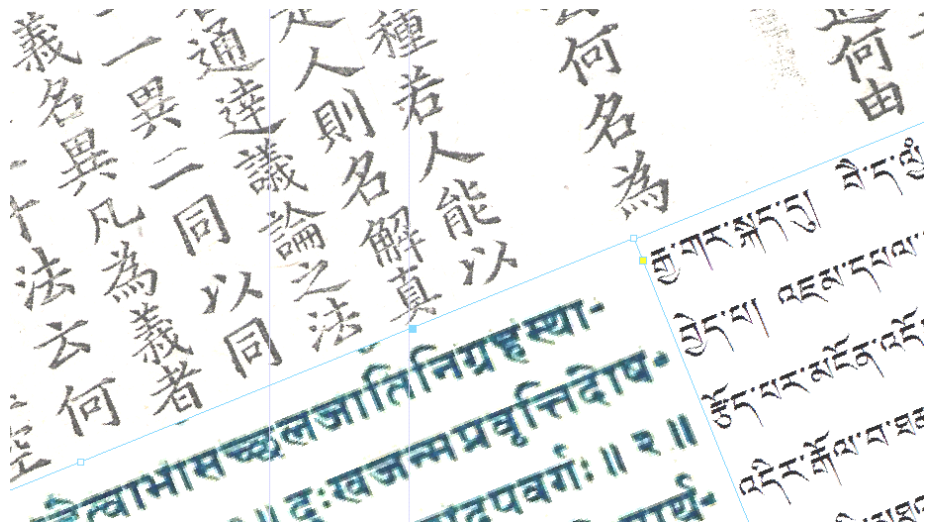


2019년 불교학술단체 연합 워크숍

한국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9년 12월20일(금) 13:00-17:00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



주최 및 주관

동아시아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한국선학회

■ 워크숍 일정표 ■

2019년도 불교학술단체 연합 워크숍

일시 :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13:00~17:30

장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철 세미나실

한국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

개회식 [13:00 ~ 13:10]

진행사회 : 조 기 룡 (동국대학교)

개회사 : 김 성 철 (동국대학교[경주])

워크숍 [13:10 ~ 17:30]

1부 _ 발표 (13:10 ~ 16:40)

발표사회 : 이 재 수 (동국대학교)

[제1발표] (13:10 ~ 14:10)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 발전방안

발 표 : 이 병 욱 (고려대학교)

토 론 : 김 희 (울산대학교) ※ 중간 휴식 (14:10 ~ 14:20)

[제2발표] (14:20 ~ 15:20)

불교 학술지 편집 동일안 모색

발 표 : 차 상 업 (금강대학교)

토 론 : 강 형 철 (동국대학교) ※ 중간 휴식 (15:20 ~ 15:30)

[제3발표] (15:30 ~ 16:30)

불교 국제학술지 정보 및 투고방법

발 표 : 조 은 수 (서울대학교)

발 표 : 고 승 학 (금강대학교) ※ 중간 휴식 (16:30 ~ 16:40)

2부 _ 총 평 (16:40 ~ 17:30)

권기현, 김방룡, 김성철, 안성두, 임승택

#폐회식

■ 목 차 ■

[제1발표]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발전방안	13:10~14:10
_발제 1	이병욱 (고려대학교)	5
_발제 2	김 희 (울산대학교)	15
[제2발표]	불교 관련 학술지 편집 통일안 모색	14:20~15:20
_공동발표	차상엽 (금강대학교) · 강형철 (동국대학교)	21
[제3발표]	불교 국제학술지 정보 및 투고방법	15:30~16:30
_공동발표	조은수 (서울대학교) · 고승학 (금강대학교)	27

[제1발표]_ 발제 1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발전방안

이 병 옥

고려대학교

I . 서론

한국불교학계에서 불교관련학회가 활성화한 계기는 불교학연구회(1998년 12월에 첫째 발표회를 개최함)가 결성되어 활발한 학술모임을 전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등의 여러 학술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들이 한국불교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토대 위에서 불교학연구회가 ‘학회의 활성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1998년 12월에 불교학연구회는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불교학연구회 전신)로 첫 월례발표회를 열었다. 그 후 불교학연구회에서는 학술발표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시도하였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학회의 활동에도 상당한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당시의 불교관련학회에서 대부분의 학술발표회에서 토론자를 지정하고 어느 정도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또 불교학연구회가 처음 활동할 무렵에는 한국불교학회와 일종의 기세의 대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기세의 대결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렸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관련학회가 전반적으로 활동력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학회를 특히 지목할 필요 없이 점차적으로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 청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불교

학연구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2019년 11월 9일, 동국대)에서는 청중수가 적었는데, 학술대회주제는 여러 사람이 상당히 고민해서 뽑은 것이었다. 또 보조사상연구원 제27차 국내학술대회(2019년 11월 8일, 법륜사 대웅전 3층)에서도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청중이 모였다.

이처럼, 최근의 동향은 학회(학술단체)의 학술대회에 청중이 점차적으로 적게 모이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불교관련학회의 전반적 위기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겨울워크숍은 여러 불교학회가 연합해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불교관련학회(학술단체)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불교관련 학회의 상호발전방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2. 불교관련학회(학술단체)의 현황

『법보신문』(1456호, 2018년 9월 19일, 이재형 기자)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불교주제 학술대회는 약 60여 개가 된다고 보도하였다. 또 법보신문(1481호, 2019년 3월 20일, 이재형 기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불교주제 학술대회는 약 40여 개가 된다고 보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기사에 소개된 학술대회를 개최한 학회(또는 학술단체)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62년 3월 5일에 불교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1983년 2월에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승격하였다. 2011년 인문한국(HK) 연구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963년에 『불교학보』 창간호를 간행하였고, 현재 『불교학보』88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에 『불교원전연구』 창간호를 간행하였고, 2016년 9월 『불교원전연구』 19호를 간행하였다.

② 한국불교학회: 1973년 7월 7일 창립총회를 가졌고, 1973년 11월 9일 전국 불교학술대회를 열었다. 1975년 12월 20일 『한국불교학』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 여름과 겨울 워크숍을 열고 있고, 중간에 특별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불교학』 92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③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974년 7월에 원불교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1975년 11월에 『원불교사상』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2004년 2월에 『원불교사상』에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현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1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으며, 월례발호회는 2019년 5월에 231차에 이르고 있다.

④ 한국불교연구원: 1974년 4월 5일에 창립하였고, 1985년 8월 15일에 『불교연구』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현재 『불교연구』 51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⑤ 보조사상연구원: 1988년 2월 22일에 송광사에서 창립하였고, 지금까지 133회 정기월례학술대회, 27차 국내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상』 55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⑥ 인도철학회: 1988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인도철학』 56집을 간행하였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⑦ 대각사상연구원: 1998년 3월 13일에 대각사상연구원 개원식을 하고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매년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현재 『대각사상』 31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⑧ 한국정토학회: 1988년 5월에 창립총회를 하였고, 1998년 9월 25일(동국대 학림관 소강당)에 제1차 한국정토학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2년 12월 9일에 『정토학연구』 제5집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정토학연구』 31집(등재지)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하고 있다.

⑨ 불교평론: 1999년 11월 20일에 『불교평론』 창간호를 간행하였고, 현재 『불교평론』 80호를 간행하고 있다. 매년 1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다.

⑩ 한국선학회: 2000년 3월 18일(동국대 학술문화관)에 창립총회를 하였고,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선학』 53호(등재지)를 간행하고 있다. (『한국선학』에서 『선학』으로 명칭 변경)

⑪ 불교학연구회: 2000년 5월 13일(동국대 학술문화관)에 창립총회를 하였고,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 봄과 가을 논문발표회, 여름과 겨울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중간에 특별학술대회를 열기도 한다. 현재 『불교학연구』 60호(우수등재지)를 간행하고 있다.

⑫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3년 11월 불교문화연구소를 창설했고, 2006년 2월 『불교학리뷰』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2007년 10월 인문한국(HK)연구사업에 선정되었다. 현재 『불교학리뷰』 제26호(등재지)를 간행하고 있다.

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5년 6월 10일(선학원)에 개원식을 하였고, 2005년 10월 18일에 제1회 학술회의를 열었다. 현재 『선문화연구』 제26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⑭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년 3월 『동아시아불교문화』창간호를 간행하였고, 현재 『동아시아불교문화』39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으며,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⑮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3년 4월 23일(동방대학원대학교)에 제1회 학술발표회를 열었고, 현재 13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불교문예연구』 13집(등재지)을 간행하고 있다.

⑯ 성철선사상연구소: 1992년 1월에 『백련불교논집』 1집을 간행하였고, 『백련불교논집』을 간행하고 있다.

⑰ 회당학회: 1992년에 『회당학보』 1집을 간행하였고, 현재 『회당학보』 23집을 간행하고 있다.

⑱ 원효학연구원: 1996년에 1회 학술대회를 열었고, 현재 19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관지 『원효학연구』를 간행하고 있다.

⑲ 동국대학교(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1997년 4월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개설하였고, 2000년 12월에 『불교문화연구』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현재 『불교문화연구』 18집을 간행하고 있다.

⑳ 천태불교문화연구원: 1996년 12월에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식을 하였고, 1998년 9월에 『천태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현재 『천태학연구』 21호를

간행하고 있으며, 매년 1회 학술대회(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㉔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1997년 11월 20일(위덕대학교 강당)에 전국밀교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밀교학보』 17권(2016년)을 간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㉕ 중앙승가대 대학원: 2008년 12월에 『대학원 연구논집』 제1집을 간행하였고, 현재 『대학원연구논집』 11집을 간행하고 있다. 또 매년 2차례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㉖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2009년 12월에 『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를 간행하였고, 『불교사상과 문화』 제7호(2015년)을 간행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을 간행하고 있으며, 대행선연구원에서는 현재 『한마음연구』 3집을 간행하고 있다. 또 만해학술원에서 『만해학연구』,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만해학보』를 간행하고 있다.

3. 불교관련 학회의 상호발전 방안

① 불교관련 학회가 여러 개가 되다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발표일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발표날짜가 겹치는 해당학회 모두에게 손실이다. 가까운 예를 들면, 불교학연구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가 2019년 5월 18일(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층)에 있었는데, 이날 서울대 철학연구소 발표 등 다른 학회의 발표와 중복되었다. 또 보조사상연구원 27차 국내학술대회가 2019년 11월 8일(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3층 대웅전)에서 열렸는데, 그 때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연구사업단의 발표와 중복되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중수가 줄게 되고, 청중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가 학회발표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현실적 기준에서 볼 때, 해당

학회(학술단체)의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물론 청중수와 상관없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좋은 학회발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발표날짜를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면 좋은 내용을 많은 청중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불교관련 학회가 적지 않고 주요학술대회를 여는 시기가 5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중복되지 않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학회간의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덜 중복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② 발표논문의 편집양식의 통일안은 뒤에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이것도 논문제출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논문제출자 입장에서는 한 학회에서 제출한 논문이 그대로 ‘게재가’로 통과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학회에 투고해야 하는데, 다른 학회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각주양식과 참고문헌 양식을 다시 고쳐야 한다. 이미 완성된 논문인데, 투고할 학회가 달라진다고 해서 각주양식 등을 다시 수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또 학회에 따라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분량도 제각각일 경우도 있다. 국문초록은 그래도 수월하게 분량을 맞출 수 있겠지만, 영문초록의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미 완성된 논문인데 단지 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처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든 발표논문의 편집양식은 통일될 필요가 있고, 통일이 안 된다면, 최소한 2개 또는 3개 정도의 형식으로라도 정리되어야 한다. 또 학회에서도 자신의 학회의 특징으로 편집양식을 내세우지 말고, 논문제출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회 논문집에 대한 평가는 논문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잣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대순사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대순사상논총』(2019년 등재지로 승격)에서는 동일한 문헌 인용표기는 다음과 같다.

바로 앞의 문헌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책, pp.1-2 또는 같은 글, p.1(논문의 경우)

같은 인용의 반복에서는 홍길동, 앞의 글, pp.1-2 또는 홍길동, 『불교사상연구』, pp.1-2(같은 저자의 논저가 둘 이상 인용되고 있을 때)

③ 학회에 대한 실질적 평가의 한 가지 항목으로 ‘논문집의 질’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불교관련학회의 경우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하고 있고, 절차적으로는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 과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좋은 논문이 논문집에 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유능한 심사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학계의 현실에서 보면 한 학회의 노력보다는 여러 학회가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학회 간에 좋은 심사위원에 대한 인물평을 공유하는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한 개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좀 더 성의 있게 심사하는 태도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④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한 학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면 복수의 학회가 연합해서 외국학자를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학회에서는 비용의 문제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학계에 외국 학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외국학자를 불러오는 것에 대한 반론도 상당히 있다. 이것은 쉽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분야에 따라서 또 초빙할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학술회의를 복수의 학회가 연합해서 주최하면 경비는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발표논문을 어느 학회논문집에 실을 것인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느 학회인들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발표논문을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실는 것도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제발표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주제논문을 제대로 다 실어야 완결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현재 불교관련학회의 기능이 논문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논문도 중요하지만, 강연회 등도 활성화된다면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 책의 내용을 저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

고 실제로 한국불교학회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책을 저술한 필자로부터 책에 관한 내용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한국불교학회에서는 2019년 동계워크숍(2019년 2월 14일,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에서 최종석 교수, 김영진 교수의 저서에 대해서 저자로부터 직접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모임은 한 학회에서 개최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학회에서 연합해서 개최하고, 형식도 좀 더 부드럽게 강연회로 한다면, 청중에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교관련학회에서 불교학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이런 종류의 강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연할 대상의 저술을 한국인의 저서에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번역서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외국의 대가의 저술을 연구자 혼자서 읽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전반적인 소개를 들으면 외국 대가의 저술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학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필자는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저, 이자랑 역, 『열반경 연구』(씨아이알, 2018)을 구입하기는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읽어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 책이 필자의 직접적 전공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나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 불교학계에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학회에서는 이런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

⑥ 학회에서 답사를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한국의 불교성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의 불교성지를 갈 필요성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보통 시민들도 동남아 등지 등을 여행을 다녀오고서 동남아 불교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불교학계에서는 동남아 불교의 전문가가 드문 현상이다. 이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불교학계가 따라잡지 못한 현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교학자가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정도만을 어느 정도 알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관심의 폭이 넓어져서 여기에 동남아불교, 티베트불교, 일본불교까지 어느 정도 소양이 있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불교성지를 답사하는 것은 불교학자들이 한국적 불교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개별 학회 차원에서 외국의 불교성지를 답사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학회 간 연합해서 다녀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된다면, 학회 간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 여러 학회가 연합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 불교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학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발표]_ 발제 2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발전방안

김 희

울산대학교

우선, 본 글에 대한 기본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글을 서두를 시작하고 합니다.

한국불교연구원와 한국선학회, 한국불교학회와 인도철학회, 그리고 불교학연구회와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금번 연합 워크숍(학술회의)의 기본 목적은 불교학 관련 학술연구 및 불교문화 일반에 관한 학술활동에 대한 국내 유수의 학술단체들에 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함과 동시에 불교 관련 학술단체의 발전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는 금 번 기획된 연합학술회의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제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 학술단체들의 연구 동향을 일정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개별 학회가 지향하고 있는 창립 목적과 그에 준한 활동 사항들을 섭렵하고 있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문학 및 종교학 관련 전공학과를 비롯해 교양교육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현 세태를 감안할 때 불교 관련 학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통일적으로 일괄한다는 것은 미천한 공력을 가진 논평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주제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습니다. 더욱이, 불교를 심도 깊게 접해보지 못한 저의 전공(동양철학, 도가사상)을 고려한다면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조금이나마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개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도가사상을 전공했다는 점과 철학관련 학술지를 발간하는 편집 실무를 담당했었고,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를 아우르는 (동양)철학 일반의 (학회)관점에서, 또는 불교 전공자가 아닌 타자적인 관점에서 불교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말씀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평자는 정보력이 닿는 국내 학회 3곳¹⁾(연구재단이 제시하는 학회 영역구분 기준에 의거하여 대분류 철학- 소분류 동양철학 일반)에 논의를 한정하고, 최근 3년 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불교 관련 논문들에 기초하여 “불교관련 학회의 상호발전 방안”에 대한 논평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논평자가 살펴보는 국내 학회 3 곳의 학술지 발간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양철학연구회(1982년 설립)에서 발간하는 『동양철학연구』는 동양철학의 학문적 연찬과 연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동양철학연구회의 학술지로 연4회(2월, 5월, 8월, 11월) 발행된다.²⁾

○ 한국동서철학회(1983년 설립)에서 발간하는 『동서철학연구』는 철학 전문학 회지로 동·서양의 철학일반에 관련한 주제를 연구의 범위로 삼고 있으며 년 4 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된다.³⁾

○ 새한철학(2004년 설립)에서 발간하는 『철학논총』은 철학전문 학술지로 년 4회(1월30일, 4월30일, 7월30일, 10월 30일) 발행된다.⁴⁾

1) 논평자가 선정한 국내 학회 3곳을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서울권(동양철학연구회), 충남권(한국동서철학회), 경북권(새한철학회)에 해당하고,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철학 일반(한국동서철학회, 새한철학회)과 동양철학 일반(동양철학연구회)으로 나누어진다.

2) https://eastphil.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series/sereIntro/sjRetrieveNewSereList.kci&s_MenuId=MENU-000000000021000&accnId=

3) https://eastwestphil.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series/sereIntro/sjRetrieveNewSereList.kci&s_MenuId=MENU-000000000021000&accnId=

4) <http://www.saehanphilosophy.or.kr/sobis/shph.jsp>

상기와 같이 년 4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한국동양철학회의 『동양철학연구』와 한국동서철학회의 『동서철학연구』, 새한철학의 『철학논총』은 각각 37년, 36년, 15년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에 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각 학회가 최근 3년 동안 발간한 학술지에 수록된 권 별 논문 수와 이에 준한 불교 관련 논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동양 철학 연구	2019년				2018년				2017년				소계
	권 호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권 별	15	7	9	6	8	7	8	8	10	8	6	9
	논문 수												
동서 철학 연구	2019년				2018년				2017년				소계
	권 호	未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권 별	未	18	18	17	21	21	13	15	18	25	11	22
	논문 수												
철학 논총	2019년				2018년				2017년				소계
	권 호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권 별	14	14	24	21	26	17	15	17	22	18	21	24
	논문 수												
불교 학술 연구	2019년				2018년				2017년				소계
	권 호	未	1	2	5	2	2	1	2	2	1	0	2
	권 별	未	1	2	5	2	2	1	2	2	1	0	2
	논문 수												

동·서양의 철학을 포함하는 동시에 문화일반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동서철학연구』와 『철학논총』, 그리고 동양철학 일반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동양철학연구』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충남권을 거점으로 하는 『동서철학연구』의 경우, 각 호에 수록되는 동양과 서양철학 일반에 해당하는 논문의 게재 비율은 1:1 을 유지하는 경향을 갖는다.⁵⁾ 이에 반해 경북권을 거점으로 하는 『철학논총』의 경우에는 서양철학 일

5) 이종성은 2018년 12월 『동서철학연구』 발간 35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논문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352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고, 그 중 동양철학 분야 논문은 총 661편으로 총 게재논문 대비 48.9%에 해당함을 말한다. 이종성, 「동양철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 한국동서철학회 35주년 연구사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1집, 한국동서철학회, 2019, 8쪽.

반에 해당하는 논문의 게재율이 각 호마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권을 거점으로 하는 『동양철학연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서양철 일반 또는 동서비교철학에 해당하는 논문의 게재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른 각 학회의 운영 방식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 볼 점은 있다. 즉, 동양철학 일반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동양철학연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불교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낮은 비율이지만 『동서철학연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게재된 220편의 논문 중 22편(10%)이 불교 관련 논문이고, 『철학논총』의 경우에는 233편 중 15편(6.4%)이 불교에 관한 논문이다.

표면적인 내용이지만 학회 운영의 특수성과 함께하는 상기의 수치는 논평자에게 몇 가지 고민거리로 남겨진다.

하나, “학회의 상호발전”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금일 개최되는 연합 워크숍의 기본 전제는 불교관련 학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학회 간의 연합 워크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상호발전”이라는 화두는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는 불교와 교섭한 또는 교섭하고 있는 여러 인접 학문에 대한 연계성을 열어 놓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상기에 전술한, 최근 3년 동안 『동양철학연구』에는 불교관련 논문이 게재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전진 전제 속에 갇힌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覆車之戒⁶⁾의 계기가 된다.

둘, 『동서철학연구』와 『철학논총』에 나타나는 불교 관련 논문의 게재 비율이 10% 이내에 머문다는 것과 (앞서 동양과 서양의 논문 게재비율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서양철학의 게재 비중이 높은 『철학논총』의 경우에는 불교 관련 논문의 게재율이 『동서철학연구』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학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인접 학문에 대한 또한 응용분야에 대한 인식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환원해서 말한다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공유되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는 유불도의 교섭과 융화라는 테제 속에서 전개되고 발전한 역사를 가진다. 그럼

6) 『漢書』, 「賈誼傳」, “鄙諺曰, 不習爲吏, 視已成事, 又曰, 前車覆, 後車誡.”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문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도에서 발흥한 불교이지만 중국불교와 한국불교, 일본불교가 각기 다른 특징의 내용과 양식을 갖게 되는 것은 다름의 차이가 전제된 보편적 가치의 공유, 즉 다름의 차이를 수용함으로서 발전한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불교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불교 변화를 관용과 포용의 정신 속에서 전개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발표]_ 공동발표

불교 관련 학술지 편집 통일안 모색

차 상 엽·강 형 철

금강대학교·동국대학교

2017년 편집 통일안을 모색한 이유와 그 의의

- 각 불교 관련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식이 서로 다름
- 각 논문집의 규정에 맞추어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 편집 통일안 모색은 각 학회의 편집 방식이 불일치하는 데서 발생하는 개별 연구자의 불필요한 노고를 덜어줌
- 이러한 다름과 번거로움, 그리고 불필요한 노고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17-2019 편집 통일안 모색과 관련한 진행 과정

- 2017년 3월 24일 국내의 불교 관련 학술단체 대표 혹은 편집 관련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교 관련 학술지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식의 통일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이어서 4월 7일, 4월 26일, 5월 26일, 6월 2일 총 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 진행
- '불교관련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식 통일안' :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개정안(ver. 20170602)
- 2019년 12월 20일 <2019년 불교학술단체 연합워크숍 - 한국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7년 불교학계 편집 통일안 참여 학회 및 연구원

- 대각사상연구원(대각사상), 대행선연구원(대행선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불교학보), 동국대(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불교사회문화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동아시아불교문화), 만해학회(만해학보), 보조사상연구원(보조사상),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불교문예연구),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밀교연구), 인도철학회(인도철학), 정토학회(정토사상),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승가학연구), 한국불교연구원(불교연구), 한국불교학회(한국불교학)_<가나다순>

2017년 편집 통일안 제정 원칙 및 참고자료

- 간결성 / 일관성 / 정확성 / 국제성
- 불교학계의 여러 논문작성원칙
- 사학계, 철학계 등 다른 학문분야의 논문작성법
-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카고 매뉴얼, APA, MLA 방식 등 참고

각주 예1: 한국인 저자(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 연도 쪽수 등

- 2017 통일안(이하 가): 홍길동(1987), 121-134. 1987년에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저서 121-134쪽을 의미.
- 불교학연구회(이하 나): 홍길동,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 『불교학연구』 제 58집(서울: 불교학연구회, 1987), pp.121-134.
- 불교학리뷰(이하 다): 홍길동 1987, 121-134

각주 예2: 일본인 저자(성을 표기) 연도 쪽수 등

- 가. 中村元(1960), 50. 1960년에 발간된 中村元의 논문/저서 50쪽을 의미
- 나. 中村元, 「元曉における如來藏思想」, 『印度學佛敎學研究』 57卷 2號(東京:日本印度學佛敎學研究會, 2013), pp.692-705.
- 다. 中村 1960, 50.

각주 예3: 서양인 저자(성만 표기) 연도 쪽수

- 가. Schmithausen(1981), 23-24.
- 나. Michael M. Broido, "Abhiprāya and Implication in Tibetan Linguistic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12(Boston:Springer, 1984), pp.17-25.
- 다. Schmithausen 1981, 23-24.

각주 예4: 각주 속의 약호

- 가. AKBh, 98, 12-13줄. 『○○○經』(K7, 512c-513a), "원문"
- 나. AKBh 98, 12-13. 『○○○經』 卷2(『고려대장경』7, pp.512下-513上), "인용문."
- 다. AKBh 98,12-13. 『○○○經』 卷2(K7, pp.512c3-513a2), "인용문."

각주 예5: 온전한 서지정보

- 가.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
- 나. 온전한 서지정보를 각주와 참고문헌에 2차례 기입.
- 다.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

각주 예6: 한국 2인 공저의 경우

- 가. 홍길동·장길산(2013), 30.
- 나. 홍길동·장길산, 『고구려불교전래 연구』(서울: 동국대출판부, 2013), p.30.
- 다. 홍길동·장길산 2013, 30.

각주 예7: 일본 2인 공저의 경우

- 가. 高崎直道·堀内俊郎(2015), 20.
- 나. 高崎直道·堀内俊郎, 『楞伽經』(東京: 大藏出版, 2015), p.20.
- 다. 高崎·堀内 2000, 20.

각주 예8: 서양어권 2인 공저의 경우

- 가. Alexander & Stefan(2013), 35.
- 나. Alexander and Stefan,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Delhi:Motilal Banarsidass, 1974), p.240.
- 다. Alexander and Stefan 2013, 35.

각주 예9: 번역서의 경우

- 가. 미즈노 고젠, 홍길동 역(1996), 40.
- 나. 金韓國, 『祖師禪』, 홍길동 역(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111-113.
- 다. 水野, 홍길동 역 1996, 40.

각주 예10: 학술지 이외 정기간행물

- 가. <불교신문>(1989.2.1), 9. <불교> 100호(1994.8), 3.
- 나. 한용운, 「불교와 정치」, 《불교신문》, 1989. 3. 1. 9면.

참고문헌 예11:

- 가. Murti, T.R.V.(1983), *Studies in Indian thought: collected papers of Prof. T.R.V. Murti*, edited by Harold G. Coward, Columbia: South Asia Books.
- 나. Alexander B., *A Study of Ganhwaseon*, N. Y.:Buddhist Pub., 2013.
- 다. Delhey, Martin 2009. *Samāhitā Bhūmiḥ: Das Kapitel über die meditative Versenkung im Grundteil der Yogācārabhūmi* (Vol. 2).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 JIABS(라). Beckwith, C. (1987)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Middle 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각주와 참고문헌의 기본 형식

- 각주와 참고문헌의 기본 형식은 시카고 매뉴얼(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2003) & 16th ed.(2010)의 저자-연도 표기 방식/JIABS(Tucci 1950: 45-46)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고려.

- 시카고 매뉴얼을 따를 경우, 동양어권 저서와 논문을 언급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

저자-연도방식을 반대하는 의견 수렴

- 일관성, 정확성, 간결성, 국제성
- 의견 1: 변화에 따른 논문 작성의 효율성 및 논문의 가독성 저하
- 의견 2: 국제적 방식을 따르는 것에 의한 지역 학문의 다양성 저해
- 의견 3: 저자-연도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구미권에 대한 학문적 사대주의
- 의견 4: 인도불교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불교학계 전체에 강요
- 의견 5: 오랜 기간 한국 학계에서 사용해온 방식을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한 신중한 태도 필요

실무회의가 필요한 이유

- 시카고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수정이 필요한 규칙에 대한 결정
예 1: 김 2013, 134. 혹은 김성철 2013, 134.? Cf. Kim 2013, 134.
예 2: 中村 1984, 43. 혹은 中村元 1984, 43. 혹은 나카무라 1984, 43.?
- 한글로 인명을 표기할 경우에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논문 작성 원칙, 발음의 정확성, 과거와 미래 연구성과 검색의 효율성.
- 시카고 매뉴얼을 '완전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논문에서 불가능 : 반드시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존재
- 일본에서 수용하는 과정의 참조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

통일안 모색을 위한 논의사항

- 통일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가?
- 회장단의 임기교체에 따라 작성규칙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학회 구조
- 해외 학계의 방식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혹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 절충안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

- 통일안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제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통일안을 논의-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인가?

자료 참조

-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http://cafe.naver.com/buddhologysangha> (불학승가)
- <불교학계 논문작성원칙 표준안 마련 합의>라는 주제 하에 2017년 3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3발표]_ 공동발표

불교 국제학술지 정보 및 투고방법

조 은 수 · 고 승 학

서울대학교 · 금강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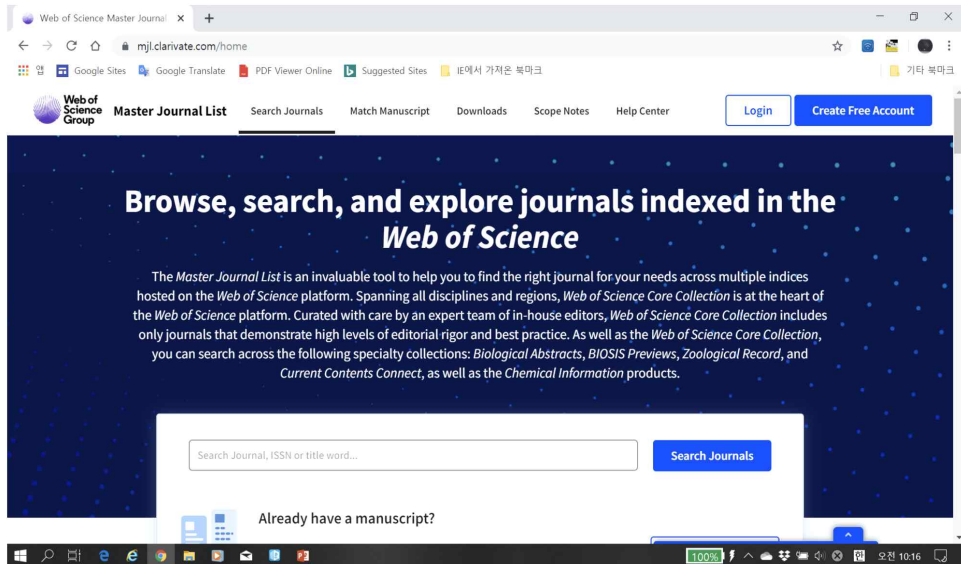
인문/사회학 관련 국제학술지 색인

- Web of Science Group (미국 Clarivate Analytics)에서 master journal list 제공 (<https://mjl.clarivate.com/home>)
- Core Collection: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2019 현재 1828종
 -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 기타 indexes:
 - Biological Abstracts
 - BIOSIS Previews
 - Zoological Record
 - Current Contents Connect
 - Chemical Information products
- Scopus (네덜란드 Elsevier 제공)관련 정보는 [https://www.kci.go.kr/kciportal/ss-mng/bbs/bbsSCIList.kci?](https://www.kci.go.kr/kciportal/ss-mng/bbs/bbsSCIList.kci?boardBean.boarSequ=000000000606)
boardBean.boarSequ=0000000006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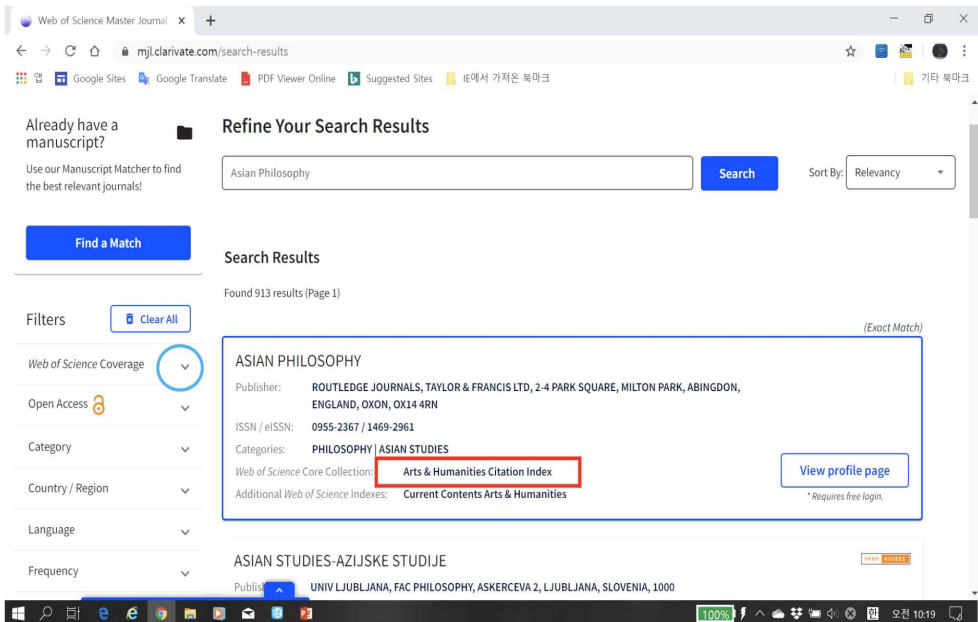
국제저명학술지 검색 (1) : 검색엔진 접속

<http://subjectguide.ewha.ac.kr/sp/subjects/guide.php?subject=sci#box-491> 참조

Web of Science Group (<https://mjl.clarivate.com/home>) * 구 Thomson Reuter



국제저명학술지 검색 (2) : 학술지 정보 확인



Filters Clear All

Web of Science Coverage

Core Collection

☐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Current Contents

☐ Agriculture, Bi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 Arts & Humanities

☐ Business Collection

☐ Clinical Medicine

☐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Collection

☐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 Life Sciences

☐ Physical, Chemical & Earth Sciences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Other

☐ BIOSIS

☐ Current Chemical Reactions

☐ Index Chemicus

☐ Science Citation Index (SCI)

☐ Zoological Record

☐ Other

Open Access

☒ Listed in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Category

Search for Category

Country / Region

Search for Country / Region

Language

Search for Language

Frequency

☐ Annual

☐ Article-by-article

☐ Bi-monthly

☐ Continuous publication

☐ Fortnightly

☐ Irregular

☐ Monthly

☐ Quarterly

☐ Semi-annual

☐ Semi-monthly

☐ Tri-annual

☐ Weekly

☐ Other / Not Provided

Journal Citation Reports

☐ Included in 2019 JCR

국제저명학술지 검색 (3): 카테고리 교차 검색

Search: asianphilosophy Search

Sort By: Relevancy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 x ARTS & HUMANITIES x Include Open Access Only

Search Results

Found 44 results (Page 1)

ASIAN ETHNOLOGY

Publisher: NANZAN UNIV, NANZAN INST RELIGION & CULTURE, 18 YAMAZATO-CHO SHOWA-KU, NAGOYA, JAPAN, 466

원고 작성 및 투고 절차 예시 (1) :

*Asian Philosophy*의 경우

1. 저널명 'Asian Philosophy' 구글 검색
2. <https://www.tandfonline.com/loi/casp20> 접속
3. 'Instruction for authors' 클릭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 제출)

The screenshot shows the journal's homepage with the title 'Asian Philosoph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hilosophical Traditions of the East'. Below the title are links for 'journal homepage', 'New content alerts', 'RSS', 'Subscribe', and 'Citation search'. Under the 'Current issue' section, there is a 'List of issues' table with 'Volume 29 2019' and 'Volume 28 2018'. On the left side, under 'This journal', there are links for 'Aims and scope', 'Instructions for author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Society information'.

원고 작성 및 투고 절차 예시 (2) : *The Eastern Buddhist*의 경우

The screenshot displays the website of The Eastern Buddhist Society and an email exchange regarding article submission. The website includes a navigation bar, a cover image of 'The Eastern Buddhist' journal, and sections for 'About the Journal', 'Editorial Members', 'Current Contents', and 'Submissions'. The email thread shows a submission confirmation, a peer review request, and a response from the editor, Thomas Siebert.

Re: Article submission for The Eastern Buddhist
 보낸사람: EBS - Siebert Thomas <ebs_edit@otan.ac.jp> 15.10.27 12:08 주승우가 < >
 [인쇄]

Dear Professor [redact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bmission and your interest in publishing your article in *The Eastern Buddhist*.

After a first appraisal, we have the articles, which are submitted to us, peer reviewed. Based on the review the editorial committee decides if the article should be included in an upcoming issue of *The Eastern Buddhist* or not. This process usually takes some weeks. I hope for your understanding a not patience. We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Best regards,
 Thomas Siebert

The Eastern Buddhist Society
 EBS 東方仏教社 編集事務局
 E-mail: ebs_edit@otan.ac.jp
 Website: <http://web.otani.ac.jp/EBS>

From: [redacted]
 Sent: Tuesday, October 27, 2015 1:06
 To: EBS - The Eastern Buddhist Society
 Subject: Article submission for The Eastern Buddhist

Dear Journal Editor:

Greetings,
 My name is [redacted] I would like to submit my paper to *The Eastern Buddhist*.
 I am currently working at [redacted] in Korea.
 Attached is my paper recently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Haegeon Buddhism, which was held in T. on September 4th (http://color.nyu.edu/between/news.php?item=11).

I apologize for the delay in answering you. I has been decided that we would like to include your article in one of our future issues.
 I attached the peer reviews as a PDF file to this mail. Please revise your article according to the comments in the reviews and send it back to us.
 After this, we will start the editing process of your article.

Best wishes,
 Thomas Siebert

The Eastern Buddhist Society
 EBS 東方仏教社 編集事務局
 E-mail: ebs_edit@otan.ac.jp
 Website: <http://web.otani.ac.jp/EBS>

Title	Periodical	ISSN	Nation	Address
ACTA KOREANA	Semiannual	1520-7412	SOUTH KOREA	ACADEMIA KOREANA KEIMYUNG UNIV
ASIAN PHILOSOPHY	Quarterly	0955-2367	OXON	ROUTLEDGE JOURNALS, TAYLOR & FRANCIS LTD,
BUDDHIST STUDIES REVIEW	Semiannual	0265-2897	ENGLAND	EQUINOX PUBLISHING LTD,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Tri-annual	0041-977X	USA	CAMBRIDGE UNIV PRESS
CONTEMPORARY BUDDHISM	Semiannual	1463-9947	OXON	ROUTLEDGE JOURNALS, TAYLOR & FRANCIS LTD,
DAO-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Quarterly	1540-3009	NETHERLANDS	SPRINGER
EASTERN BUDDHIST	Semiannual	0012-8708	JAPAN	EASTERN BUDDHIST SOC, OTANI UNIV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Semiannual	0073-0548	USA	HARVARD-YENCHING INST
INDO-IRANIAN JOURNAL	Quarterly	0019-7246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LISHER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Quarterly	0301-8121	USA	WILE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Bimonthly	0022-1791	NETHERLANDS	SPRINGER
JOURNAL OF KOREAN RELIGIONS	Semiannual	2093-7288	SOUTH KOREA	INST STUDY RELIGION, SOGANG UNIV
JOURNAL OF KOREAN STUDIES	Semiannual	0731-1613	USA	DUKE UNIV PRESS
JOURNAL OF RELIGION	Quarterly	0022-4189	USA	UNIV CHICAGO PRESS
KOREA JOURNAL	Quarterly	0023-3900	SOUTH KOREA	ACAD KOREAN STUDIES
PHILOSOPHY EAST & WEST	Quarterly	0031-8221	USA	UNIV HAWAII PRESS
RELIGIONS	Monthly	2077-1444	SWITZERLAND	MDPI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emiannual	1598-2661	SOUTH KOREA	SUNGKYUNKWAN UNIVERSITY
T'oung Pao	Semiannual	0082-5433	Netherlands	Brill Academic Publishers

저널 논문 출판의 단계

1. 어느 저널에 투고할지 정한다.
2. 저널 에디터에게 contact (어떤 저널은 온라인저자 등록으로 대신함)
3. 투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 준비.
4. 투고.
5. 채택.
6. 출판사 확인서.
7. Galley proof 교정.
8. 출판된 원고 수령

저널 에디터와 이메일 교신하는 방법 (1) - Pre-submission inquiry¹⁾

Subject: Publication inquiry

Dear Dr. McBrien:

I am writing to inquire about the suitability of my paper, "XXX"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of XX*. I believe that and I hope your will consider evaluating the manuscript to see if it falls within your journal's scope. The paper's abstract is copied below. I have also attached the full manuscript, in case you would like to read further.

....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manuscript, please let me know.

Thank you very much, and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Yours sincerely,
XXXX(name)
XXXXXX(직함...)

1) 아래 6장의 slide의 내용은 Dylan Williams, *The Art of Communicating with Journal Editors* (SNU CTL workshop, 2019.10.22) 에서 발췌한 것임.

저널 에디터와 이메일 교신하는 방법 (2) - Cover letter

Caroline Daniels
Editor-in-Chief
The Journal of XXX

Dear Ms. Daniels:

I am writing to submit my manuscript entitled, "XXX" for consideration for your Journal of XXX. I have analyzed

....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XXXX

저널 에디터와 이메일 교신하는 방법 (3) -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

Dear Dr. Jones:

I have submitted my revised manuscript titled "XXX" via the online submission system on 13/07/2019. Two days later, the status changed to 'with editor.' However, the status have remained unchanged ever since.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let me know whether there has been any further progress on my submission.

Sincerely,

XXX

저널 에디터와 이메일 교신하는 방법 (4)

- 수정본 제출

Dear Dr. Jones:

Thank you for your email dated 13th of July, 2019 enclosing the reviewer's comments. I have carefully reviewed and revised the manuscript accordingly. My responses are given in a point by point manner below. Changes that I have made to the manuscript are shown in bold green font.

I hope that the revised version is now suitable for publication and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in due course.

Yours sincerely,

Name

흔히 하는 실수

Subject: **research paper**

Dear **editor**,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s Choi** and **I'm** a medical researcher **at Catholic University St. Mary's Hospital Korea**. I have **4** publications to date. I am trying **to get** my new research published and am sending to **some journals** I like. The research is called: XXX. **Are you interested?**

Sincerely,

Choi

Medical researcher

Useful phrases.

Opening Salutation

- Dear XXXX, / • To whom it may concern,

Opening Sentences

- I am writing to ... / • Just a note to ...
- Just a short email to / • inform you
- clarify - / • confirm / • let you know
- reply to / • request / • tell you

Making Inquiries

- I would like to know ...
- Could you please send me ...?
- Would you be able to ...?
- Can you help ...?

Concluding Message

-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 Hope to hear from you soon.
- Let me know if ...
- Thank you for your help.

Closing Salutations

- Yours sincerely, / • Kind regards,
- Best regards, / • Best wishes, / • Best,

학술적 글쓰기의일반적 기준 (저술의 경우)

-Style, Structure, Audiendce²⁾

- *Cut the literature review to the core.* Readers of books generally grant more authority to authors than do readers of dissertations. Your audience will assume that you've done your homework; they want to know what you have to contribute.
- *Know your craft.* You may have divided your dissertation chapters into

2) 본 슬라이드의 내용은 Nathan McBrien, "How to Get Your Manuscript Published" (SNU, 2007.09.17)에서 발췌한 것임.

many sections and subsections, and then provided signposting for each and every part and subpart along the way. For most books such frameworks, by and large, should disappear into the fluidity of the narrative. The book should flow, not hop from stone to stone. Along the same lines, the standard structure for journal articles in many disciplines—introduction, data and methods, hypotheses, findings, implications—may be (and often is) wholly inappropriate for book chapters.

- *Eliminate repetition.* What goes at the chapter level goes for the book as a whole. It's important to set the stage at the beginning and tie things together at the end, but do not merely announce what you will say at the beginning, only to announce at the end that you've said it.
- *Keep citation relevant.* Dissertation writers, worried (often with justification) that their judgment carries no weight, are apt to cite almost every statement. But the author of a book must accept responsibility. Pare down your citations,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use notes as an opportunity to digress.
- *The right tool for the job.* Consider the size of the topic relative to the size of the book and its potential audience. Do you really have a book's worth of material, or would it be better published as a few articles? Conversely, should you consider saving some material for your second book? Ask your colleagues for their tough, but fair, assessments before you approach an editor.
- *Bring it up to date.* Bring the manuscript up to date before you submit it. A manuscript on global terrorism completed in August 2001 is unlikely to win much interest if submitted unchanged a year later. Even manuscripts focused on the distant past must be part of present-day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to draw the attention of your editor.
- *Make it accessible.* Technical terminology exists for a reason, but try to refrain from jargon (and minor intra-disciplinary debates) when common

language will suffice. Define your terms as needed, and don't be afraid to use your data to tell a story.

- *Be aware of significance.* A solid scholarly book, like a solid dissertation, is based on original research consistently organized within a sound theoretical framework. But a successful book of necessity has high standards for significance in relation to an actually existing, measurable audience. Who will pay money for your book? How broad an audience can you reach? How can you construct your manuscript to reach that audience?
- *Consider hiring a translator or editor.* If English is not your first language, consider hiring a professional translator or editor (or possibly both) to work with you before you submit your manuscript for formal review. If a press expresses interest in your book, do not hesitate to ask the editor if she or he knows of a good development editor in your field.

주의해야 할 사항 (1)

-Formal vs. informal language

Dear XXX,

Please forgive my slow response! Your query was forwarded to me, as Chair of the Search Committee.

Yes we will be reading all applications with great care, and we are very interested in bringing Asian philosophy into our department and curriculum.

It is not too late to apply, even though we have just begun reading applications.

If you do decide to apply, please do alert me to the fact, so that I can make sure that you don't XXXXX.

Sincerely,

XXX

Professor of Philosophy

=====

Dear XXX,

Hello, I am XXX. Yet, my major areas of research and teaching are XXX, and I am wondering whether I can apply for your assistant professor position with these special areas. It would be very appreciated if you could let me know whether you offer a position on the philosophy of these special areas (XXX). Thank you for everything..

Sincerely yours,

XXX

주의해야 할 사항 (2)

- 논문 선정의 세가지 criterion:
 - (1) 논점(argument)이 분명한지
 - (2) 학계의 최신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지
 - (3) 문장이 명징한지
- 한국어 논문 서술의 순서와 영문 논문 서술법의 차이점을 이해하자.
- 구미학계의 학문관과 이론적 경향을 이해하자. 이에 따라 연구의 태도와 주제 선정 등이 달라진다. 해체주의 등이 학계를 지배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에센셜리즘이나 민족주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다.
- 한국과 구미 학계의 관심과의 격차를 고려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연구를 모색하자 - eg. 소위 인류가 축적한 지적 유산을 새롭게 구성하는 책들, 이전의 역사와 고전에 대한 '객관적 명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맥락 잡기'로 새롭게 해석한 것. 특정 시기를 다룬 연구, 특정 테마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것.
- 해외 학계에 대한 성급한 불신을 경계하자 - 그들은 문헌을 모른다, 자료 섭렵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어떤 경우 서구학계의 current agenda에 지나치게 민감함.
- 결론적으로 영문논문 출판을 상호 이해와 학문 교류라는 관점에서 호혜적인 활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Punctuation (1~8): *Keys for Writers* (2003), Part 8

- 1) Comma의 용법: 문장의 부분들을 분리. "When in doubt, leave them out"의 원칙 적용(과도한 사용 억제).
 - 두 개의 independent clause를 coordinate conjunction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나, 각각의 절이 짧을 경우 comma 생략 가능.
 - Introductory words/phrases/clauses 다음에 사용.
 - 보충되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transitional expression 삽입할 때.
 - 사물, 사건 나열 시 AmE는 마지막 대상 앞에 <comma + and>.
 - 인용문 전후에 사용.

- 주어와 술어 사이, 동일 주어에 연결된 두 개의 동사 사이, 등위접속사의 다음에는 사용 불가.

- after, before, because, if, since, unless, until, when 등 앞에서 또는 명사를 한정적으로(cumulative, restrictive) 수식할 경우에 사용 불가.

- <Comma 사용된 예>

- Her husband, a computer programmer, works late at night. (appositive)

- “I intend to win an Oscar,” she announced. He replied, “Good luck.”

- She never insults, she just criticizes. (일반적으로 접속사로 결합되어야 하나, parallel structure이므로 comma만으로 결합 가능.)

- <Comma 사용 불가한 경우>

- Test results tend to be good when students study in groups.

- Cf. He skates so fast, despite his size, that he will probably break the world record. (일반적으로 that 앞에 comma 사용 못하지만, despite his size가 삽입되었으므로 가능.)

- Alice Walker’s essay “Beauty: When the Other Dancer Is the Self” discusses coping with a physical disfigurement. (특정 에세이에 한정.)

- “Do you want to be a swimmer?” she asked. (물음표 뒤)

- The advertisers are promoting “a healthier lifestyle.” (문장의 일부)

2) **Apostrophe**의 용법: 소유와 생략(축약) 표시.

- 일반적으로 명사 복수형 만들 때는 사용 안 함.

- 복수형(-s) 명사 소유격은 apostrophe만 붙임.

- -s로 끝나는 단수명사는 <-s + apostrophe + s>꼴로 쓰임.

- 기타: '70s (1970s), no a's (no letter a), FAQs (no apostrophe)

3) **Quotation mark**의 용법: 직접 인용, 논문, 짧은 산문이나 노래, 시 제목 등.

- <say/state/write + comma + quotation>, <full sentence + colon + quotation>

- When Henry Rosovsky characterizes Bloom’s ideas as “mind-boggling,” he is not offering praise.

- Geoffrey Wolff observes that when his father died, there was nothing to indicate “that he had ever known another human being” (11).

(in-text citation의 경우 period는 맨 마지막에)

- 한 화자의 긴 담화 인용할 경우 마지막 단락에만 closing quotation mark 붙인다.

“ _____.
 “ _____.
 “ _____.”

- 인용문 안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 single quotation marks (' ') 사용(BrE는 반대로).

- 4) Semicolon과 Colon의 용법: semicolon은 등위접속사를 대신하여 두 개의 독립된 절을 연결하며, semicolon 다음에 오는 절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다. 또 열거하는 항목들 안에 comma가 포함된 경우에도 쓸 수 있다. colon은 항목을 열거할 때 사용하며, 보충 설명을 하거나 원리나 규칙을 제시할 때, 한 문장 안에 인용문이 그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서명, 인사 등에도 사용.

* Colon 쓸 수 없는 경우:

- The book includes a preface, an introduction, an appendix, and an index. (동사 바로 다음)
- The essay consisted of a clear beginning, middle, and end. (전치사 다음)
- *for example, especially, including* 뒤에도 쓸 수 없다.

- 5) **Period**의 용법: 문장 마지막, 약어 뒤에(보통 space 추가하나, e.g., i.e., a.m., p.m. 등은 예외).

- 6) **Question mark, exclamation point**의 용법: 각각 직접 의문, 불확실한 연대를 나타내는 경우와 인용문 내에서 강한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임.)

- 7) **Dash, Parenthesis**의 용법: 문장 흐름을 끊으면서 잠시 설명을 더하거나 독자의 예상과 달라지는 언급을 할 경우에 dash를 사용하며 전후에 space를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Parentheses는 부가적 정보를 제시하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보충 설명을 할 경우 period는 괄호 안에 넣는다. <○ ○ ○. (□ □ □.)>

8) **Bracket**의 용법: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만들기 위해 보충한 경우에 사용하며, 오류가 있는 원문을 인용할 경우 [sic]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9) **Slash**: 시의 행 바뀔을 나타내거나 option을 나타낼 때 쓰임.

10) **Ellipsis dot**: 생략을 나타낼 때< . . .>

* **Italic (underlining)**:

책, 잡지, 신문, 연극, 영화, TV 시리즈물, 긴 시, 음악, 웹 사이트 등의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하나, Bible, Qur'an 등의 종교 서적, Bible의 챕터, 법령 등은 italicize 하지 않음. 또 글자나 숫자 자체를 지시할 때, 영어 이외의 외국어 표기 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강조를 위해서는 사용을 금한다.

* **Capitalization (uppercase letter)**:

대명사 I, 문장의 첫 단어의 첫 글자, 고유명사/형용사, 인용문의 첫 글자 등을 대문자 처리하나, semicolon 뒤에 올 때는 대문자로 바꾸지 않는다.

- The Web site provides further historical information (**just** click the icon).

- The Web site provides further historical information. (**Just** click the icon.)

* **Numeral**: 인문학 분야 서적에서는 보통 99까지는 spell out하나, 두 수치를 대조하거나 단위와 함께 쓸 경우에는 numeral을 사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장 처음에 올 경우에는 spell out한다.

* **Hyphen**: 합성어 일부에 사용되며, <부사 + hyphen + 형용사/분사> 형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hyphen 생략한다.

* 혼동되는 철자들: changeable, enforceable, truly, wholly, duly, surely, acknowledgment, judgment 등.

- 라틴어 유래 약어들: etc., i.e., e.g., NB, et al., cf. 등.

- 자주 쓰는 영어 약어들: w/, FYI, chap. CE 등.